

# 전남도, 실내외 전원 마스크 착용...지역사회 감염 차단

### 25일까지 강화된 방역대책 시행 수도권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주요 관광지 전담방역요원 배치 선별진료소 밤8시까지 연장 운영

전남도가 오는 25일까지 강화된 코로나 19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1주일 이내 수도권 방문자 코로나 진단검사 권고, 실내외에서 전원 마스크 착용, 주요 관광지 방역 전담공무원 배치 등이 골자다. 중앙 방역당국이 연일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는 수도권을 강하게 누르면서, 휴가철 풍선 효과로 해수욕장 등 주요관광지를 비롯한 전남 전체의 방역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11일 "오는 25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9일 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김영록 지사 주재로 실국장 및 시·군 부단체장 특별방역 대책회의를 열어,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10일부터 방역대책 강화에 들어갔다.

최근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1300명 선을 위협, 수도권에 12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에 방문객이 몰릴 것을 우려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 조치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또한 최근 전파력이

센 인도발 델타 변이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잇따라 확인되는 점도 고려됐다.

전남도는 강화된 방역 대책 시행을 위해 지난 10일 행정명령을 내렸다.

우선 전남 모든 지역 실내·외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집회, 행사의 경우 허용 인원을 원칙적으로 100명까지로 제한했다. 다만 100명 이상의 집회, 행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협의 후 가능하다고 전남도는 부연했다. 유흥시설 종사자에겐 주 1회 진단검사를, 최근 7일 이내 수도권 방문자에게는 진단검사 시행을 권고했다. 진단검사 권고가 내려진 유흥시설은 유흥주점·클럽(나이트)·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볼라텍 등이다.

전남도는 최근 백신 미접종자 20~30대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청년층 진단검사 확대를 위해 주요 인구 밀집 지역에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진단 검사를 과하게 하더라도 조기에 확진자를 찾아내 지역 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강화된 방역대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주요 관광지에 방역 요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집중관리 기간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1차 위반 시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이른바 윈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지역에 2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1일 광주북구 선별진료소서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최현배 기자choi@

## 광주시, 12~15일 코로나 19극복 '어르신 특별주간'

광주시는 12~15일을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어르신 특별 주간'으로 정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이번 특별 주간은 지난 3월 이후 소상공인, 문화예술, 청년·청소년, 여성·보육 분야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운영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시·구 노인복지관장과 이용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13일에는 서구 시니어클럽 교육장·시장형 일자리 현장을 찾고, 14일에는 코로나19로 일부 운영이 중단된 빛고을 노

인건강타운 시설들을 살펴본다.

15일에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과 서민을 이용하는 노인 가정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한다.

이용섭 시장은 "경로당·복지관 이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사회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고민하겠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친 고령사회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55~59세 접종 모더나 백신 4차 물량 39만회분 도착

미국 모더나사(社)의 코로나19 백신 4차 물량이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어왔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8일에 이어 이날 모더나 백신 39만6000회분이 추가로 도착했다. 이에 따라 7월 들어 공급된 모더나 백신은 지난 8일 도착한 35만4000회분을 합쳐 총 75만회분으로 늘었다. 이에 앞서 6월에는 2차례 걸쳐 1·2차 물량 11만1천회분이 들어왔다.

이번에 들어온 백신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55~59세(1962~1966년 출생자) 접종에 사용된다.

이들에 대한 사전예약 기간은 하루 뒤인 12일부터 17일까지 엿새 간이다. 50대 가운데 50~54세(1967~1971년 출생자)는 19~24일 사전예약 후 내달 9일부터 21일까지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는다.

정부가 모더나사와 계약한 물량은 총 4000만회분(2000만명분)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5개 종류 총 1억9천300만회(1억명) 분이며, 이날 중에는 총 1천만회(500만명)분의 백신이 국내로 들어온다. /연합뉴스

## 전남 집중호우 수산 피해만 227억원

### 문성혁 해수부장관, 오늘 '전복 2천만 마리 폐사' 강진 방문

지난 5, 6일 500mm 안팎의 폭풍탄성 장맛비로 인한 전남지역 수산 피해 규모가 2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복·새우·우렁이·황어·붕어 등 폐사되거나 유실된 생물은 2800만 마리를 웃돌고 피해액도 2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정작 정부의 복구 지원비는 실제 피해의 25% 수준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집계된 수산 피해 규모는 강진 등 전남 남해안지역 5개 시군, 114여가에 걸쳐 227억원으로 파악됐다. 해양스레기 3061t 처리 비용도 9억6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물에서는 전복 2893만 마리, 새우 30만 마

리, 우렁이 3t, 황어 2만 마리, 동자개 5만 마리, 붕어 3만 마리 등이 폐사되거나 유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생물 분야에서만 100여가에서 227억원의 피해가 났다. 시설 피해는 침수 43개소, 파손 2개소 등 59여가에 걸쳐 46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어선의 경우 침수 7척, 반파 1척 등 700만원의 피해가 났다.

시군 별 수산 분야 피해액은 강진 38여가 174억4100만원, 장흥 5여가 1000만원, 해남 5여가 3억5200만원, 진도 61여가 46억9800만원, 완도 5여가 2억3100만원이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강진의 경우 31여가에서 전복 2261만마리가 폐사됐고, 1여가에서는 새우 30만 마리가 유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성혁 장관

문제는 수산물 피해의 경우, 실제 피해 규모보다 정부가 지원하는 복구비가 현저하게 적다는 점이다. 새끼 전복을 들여와 2년간 양식했을 때 크기는 8cm로 실거래가는 3000원 수준이지만, 복구비는 770원으로 실제 피해의 25.7%만 지원된다.

이마저도 입식 신고가 돼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2015년 단가 인상 이후 6년간 동결된 재해복구비 단가를 최소한 실거래가의 5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수산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에서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피해 현장 점검을 위해 전남을 방문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이날 강진군 마량면 마량 앞바다 가두리 양식장 등을 찾아 피해 현황을 살피고, 어업인들과 간담회도 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靑, 문대통령 방일 "실질성과 있어야"

도쿄올림픽 개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둘러싼 물밑 협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오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한 문 대통령의 방일, 나아가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와의 첫 회담에 대해 "마지막까지 열린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문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는 양상이다. 원인으로서는 한일 정상회담 성격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시각차가 가장 크다. 청와대는 실질적인 정상회담, 나아가 일정한 성과가 예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는 그동안 문 대통령의 방일과 관련해 정상 회담과 성과,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해 왔다"며 "무엇보다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은 '형식적인 정상회담'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정상회담 성사 시 스가 총리가 각국 주요 인물과 만나야 하므로 문 대통령을 포함해 '1인당 15분 정도의 회담'이 될지 모른다는 총리관저 소식통의 발언을 소개했다.

결국 주요 현안에 대한 한국의 대책 제시를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정상회담을 피하는 듯한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의 방일은 물 건너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임야, 단독섬**  
삽니다. 010-6837-4700

**금매물과 투자**  
경매물건에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든가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 010-2860-4700

## 나주 요양병원 「급매매」

토지면적 | 10,162㎡  
건물면적 | 7,296㎡ (총 3동)

- ▶1동(2017년 준공) : 3,507㎡  
- 지상 1층 ~ 지상 4층  
- 침대 수 : 200침대
- ▶2동(2012년 준공) : 2,336㎡  
- 지상 1층 ~ 지상 4층  
- 현재 주간 요양 보호 30명  
- 요양일 90명  
- 추친용도 : 암 병동 또는 치매 병동
- ▶3동(2008년 준공) : 1,453㎡  
- 지상 1층 ~ 지상 3층  
- 현재 장례식장 운영 중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매매가격 | 118억원  
상담문의 | 010-3605-8564 (임선희)  
나주시 우정로 56 리치타워 A동 101호  
**전남공인중개사**

### 분할합병공고 (주권제출 및 재건자의제출공고)

주식회사 중앙(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중앙전기(이하 "을"이라 한다)는 서기 2021년 07월 09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의 전기공사 영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은 존속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시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1년 07월 12일  
"갑" 주식회사 중앙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6 대표이사 최 정 순  
"을" 주식회사 중앙전기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6 대표이사 최 정 순

###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의제출공고)

주식회사 대한이앤씨(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정경전기(이하 "을"이라 함)는 서기 2021년 07월 11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 영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시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서기 2021년 07월 12일  
"갑" 상 호 : 주식회사 대한이앤씨 (법인등록번호 : 200111-0534557)  
소 제 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223-7 303호(쌍암동, 미래제프리카)  
대표이사 : 김 태 영  
"을" 상 호 : 주식회사 정경전기 (법인등록번호 : 161411-0052973)  
소 제 지 : 충청남도 서산시 장동1길 16-2(장동) 사내이사 : 박 소 연

광주일보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先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안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문	651-1833
• 봉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철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